

2004년, 시장시스템 구축 통한 벤처생태계 구성에 주력

... 올해는 벤처기업 꾸준히 성장한 해
... 신성장산업 육성은 기술력 갖춘 벤처가 중심돼야

▶ 청장님께서서는 우리 벤처기업의 2003년도 활동 및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년도는 중국의 사스, 이라크 전쟁 등 혼란한 국제정세와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기업인들에게는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T산업의 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을 경주한 결과 벤처기업수도 지난 21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매출액도 50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이 3개나 됩니다. 기업가치면(시가기준)에서도 전체 공개기업의 100위 이내에 벤처기업이 5개나 들어있을 정도로 제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수출(2003. 1 ~ 9)도 지난해보다 27.5% 증가하여 대기업(14.1%) 및 일반중소기업(21.1%)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벤처기업 고용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우리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인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마케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벤처기업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확산 등을 통해 신뢰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M&A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진입과 퇴출'이 원활한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많은 벤처기업인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인, 기술력이나 기업경영분야에서 관심을 끌었던 벤처기업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 본 대부분의 벤처기업인은 모두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각국의 대기업들과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일이 기업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몇날 밤을 뜬눈으로 지낸 기업인이 있었는데,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낯선 타국에서 애타는 밤을 보냈던 기업인, 그리고 종업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구내 식당으로 사장실을 내놓은 기업인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자랑하던 어느 벤처기업인의 빛나는 눈동자가 우리 벤처기업의 희망이자 내일을 열어가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요즘 많은 벤처기업인들이 지난 국민의 정부가 사용한 '벤처'라는 단어와 참여정부가 도입한 '신성장산업'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서는 어떠신지요. 더불어 '참여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벤처' 활성화와 '신성장산업' 육성은 모두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성장활로를 찾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선정한 10대 '신성장산업'은 어느 대기업이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술개발·사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성장산업'의 육성은 기술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에서 사업화에 이

르는 일련의 과제를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 등은 대기업이 담당하고 관련 부품·소재기술개발 및 사업화는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이 담당하는 등 역할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신성장산업' 육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2만불시대를 열어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청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시장시스템에 의한 벤처생태계 조성'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인 벤처기업의 지속적 육성은 불가피하나, 그동안은 양적 위주의 성장, 일부 사이비벤처 등으로 신뢰가 추락하고, 투자도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벤처기업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민간 시장시스템에 의해 벤처창업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빠져나갈 수 있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그간 정부 주도의 벤처투자 시스템을 민간 벤처캐피탈이 중심이 되는 투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창업투자회사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지 못한 주식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회수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 벤처기업은 M&A 등을 통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상법 등 현재의 제도로 M&A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절차 간소화, 다양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규모가 작고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의한 벤처확인제도를 1~2년 앞당겨 조기 종료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벤처투자기관 등 민간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기업이 발굴·투자되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 의한 벤처확인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시장 자율 운영에 대비하여 벤처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및 투명성·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 최근 청장님은 우리 벤처기업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M&A 절차 간소화를 위해 애썼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개정은 지난 6월 마련된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소규모 벤처기업의 M&A를 저해해 온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 간소화 등으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간 합병, 이업종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주식의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종전 음성적·편법적 M&A가 제도화되는 한편, 주식이치 공인평가제도 도입, M&A관련 세제지원 등으로 체계적인 M&A 인프라가 구축되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부정적으로만 여겨졌던 M&A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실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퇴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입과 퇴출’이 원활한 시장중심의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많은 벤처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부분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기 위한 하나의 방책일 수 있으나, 글로벌 경제를 실현해야 생존 및 성장할 수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실행의 수장으로서 내수시장부문과 수출지원정책 두 가지 측면에 어떤 정책기조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벤처기업 제품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국방부, 행자부 등 16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중소벤처제품 구매를 제도화하고, 특히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운영하는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수시장의 경우 특정 업체에 대한 판로 지원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벤처제품의 특성상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수출자금지원,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은 물론 해외에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해외진출 초기 벤처기업들의 현지 정착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건설팅사나 벤처캐피탈을 통해 해외정보 획득, 해외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고,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SBIR참여를 지원하며, 주요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A/S 및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수출시의 비용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04년도 벤처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4년도 벤처정책은 금년에 수립된 참여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방향(2003 ~ 2007)에 따라 '창업-성장-퇴출'의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시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순환 구조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장기능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5~2006년도 벤처확인제도의 종료에 대비하여 벤처기업 혁신능력을 제고하여 투명성·건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시장 자율운영에 대비하여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발한 벤처 창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대학(원)을 개설·운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창업지원자금,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수단을 내실화하는 한편, 창업관련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침체된 국내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조합에 전문적으로 출자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확대·운영하고, 유동화펀드(Secondary Fund), 구주거래정보망 등을 통해 벤처투자 주식의 유동성 증대 및 건전한 투자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벤처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통해 조달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벤처기업 해외지원센터' (15개국, 35개소)를 현지화·특성화하는 한편, 현재 미국에 설치 운영 중인 벤처기업 공동 A/S 물류센터를 유럽 등으로 확대하여 벤처 수출제품의 현지 진출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벤처촉진지구를 통해 지역별 벤처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의 유휴 공공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여 지방의 벤처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여성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실 벤처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 M&A를 통해 생

성-소멸이 원활한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중 개정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세법 등에 따라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제도 도입, 합병 및 영업양수도절차 간소화, 주식이치 공인평가제도 도입, 주식교환 양도세 이연 등 관련 법·제도적 여건을 완벽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청장님은 벤처기업들이 2004년도에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경제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등 후발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 각 분야의 기술개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빠른 기술, 좀 더 섬세한 기술, 좀 더 넓고 강화된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시대의 도래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이 우리 벤처기업이 성장하기에는 너무 좁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 수출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기술개발과 해외진출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속 발전되고, 우리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인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온 벤처기업 모두가 내년에도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새해에는 우리 벤처기업인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새해인사를 대신합니다.



시장기능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5~2006년도 벤처확인제도의
종료에 대비하여
벤처기업 혁신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투명성·건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시장 자율운영에 대비하여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벤처제품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통한 조달규모
확대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